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황 연구

심수현[†] · 나유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Fashion Design

Soo-Hyun Shim[†] · Yoo-Sin Na · Gum-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12. 14. 접수/2007. 1. 22. 채택)

Abstract

Hanbok had the history of more than 2,000 years, so Hanbok represents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of dress design. Since 1980's, Hanbok has been changed to be suitable for contemporary society with diverse titles such as reformed Korean clothes, living Korean clothes, contemporary Korean clothes, and fashion Korean clothes, etc. However, Korean clothes of such a new style have not overcome a limitation in traditional styles in terms of desig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us to try to have the world fashion industry recognize the fashion look of 'Korean style' through the contemporary fashion of Korean image and to pursue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yle through this fashion. This study is firstl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beauty, secondly to examine the concept in Korean fashion design, and thirdly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Korean fashion design through the study of successful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beauty can be classified into natural beauty, abstract beauty, and humorous beauty. Korean beauty shows the nature and the life of Korean people, and it should make people aware of the character and the tradition of Korean culture. The Korean fashion design is the one that utilize the Korea's unique sentiment or sense of Korean beauty that has been succeeded from the ancient to the present into fashion design by way of visual element like design, color and texture. And the successful Korean fashion designs were the universal fashion designs that enable Korean culture to be known to the world through fashion and that enable the entire world market to agree and to accept Korean style. In order to create the global Korean design, it is necessary to assimilate the Western style to Korean style and newly create it into a compromised form. And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universal sense of Korean beauty that could be accepted by the people of the world.

Key words: Korean Beauty(한국미), Korean Fashion Beauty(한국적 복식미), Korean Fashion Design(한국적 패션디자인), Hanbok(한복)

I. 서 론

현대의 패션문화는 세계를 하나로 형성시키는 소
리 없는 거대한 대중매체이며 민중예술로서 여겨지
기도 한다. 이러한 심미적인 인간의 내면의도를 예술

문화에 표현해온 디자인 의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여 모두 유사하며 인성본유의 감성적인 욕구가 창
조적 행위능력으로 결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대사회 속에서 난무하는 개
성중심의 유행은 보다 확실한 명분의 존재의미를 나
타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디자인의 원천은 바로
우리 전통의 미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Corresponding author: Soo-Hyun Shim
E-mail: picasoo77@naver.com

문화적 배경에서 우러난 미적 표현이야말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복식 가운데 한국적 디자인을 대표하는 한복은 1980년대 이후로 개량한복, 생활한복¹⁾, 현대한복, 패션한복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한복은 디자인에 있어 전통복식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였으며 세계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알렸다고보다는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적인 저항 운동가들과 80년대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가들에 의해서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가미된 민중복²⁾으로의 이미지를 심어왔다. 이와 다르게 일본의 기모노와 유카타를 비롯하여 중국의 치파우, 인도의 사리 등 다른 동남아시아의 전통복은 자국 내·외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화와 세계화를 거쳐 세계 패션 시장에 보편적인 미로서 수용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국적이고 신비한 아시아의 이미지들에서 영감을 받은 오리엔탈리즘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 우리도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 패션을 통하여 세계 패션계에 ‘한국적 스타일’의 패션 록을 인식시키고 이 패션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적 미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 한국적 미의 특성을 고찰한다.
2.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과 유형별 미적 특성을 밝힌다.
3.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사례를 연구하여 그 특성을 밝힌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실증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패션종사자 5인 이상의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미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품격 높은 패션 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세계의 보편적 문화 트렌드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적 미(美)에 관한 고찰

1) 한국적 미 개념 및 정의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옛 것의 형식적인 재현이나

모방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 전통과 현대화 요구의 충돌을 생생하게 체험한 후 생겨난 역사적 경험의 산물³⁾일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패션 디자인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전통을 되찾고자 하는 의식과 함께 한국적인 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적인 것과 현대화의 필연성 사이의 충돌에서 오는 갈등이나 타협에 대해 역사적 인식을 갖고 연구하며 통일된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소재나 전통적인 모티브의 응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beautiful’이라는 단어에 대해 인간의 얼굴과 모습에 있어서, 또한 다른 사물에 있어서 ‘형태의 우아함, 색깔의 매력과 함께 눈을 즐겁게 하고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자질에 있어 탁월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사전들은 아름다움을 색깔, 형태 등의 고유한 성질과 즐거움이라 정의한다⁴⁾.

한국적 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멋의 세계를 알아야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전통에 대해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진정한 한국미란 한국 사람들의 성장과 생활양식이 깊이 우러나는 것으로 한국인다운 체취가 짙게 표현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2) 한국적 미의 유형별 분류

한국의 미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유럽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으며 안드레아스 에카르트트는 한국의 미를 단순성을 대표로 하는 자연감, 고전성, 소박성, 단순성으로 정리하였다. 일본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한국의 미가 ‘선의 미’ 혹은 ‘비애의 미’라고 주장하여 많은 한국 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최초의 미술사가인 고유섭(1905-1944)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고유섭이 주장한 한국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무작위(무기교)의 작위(기교)’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있는 그대로의 미를 존중하는 자연의 미와 통한다. 김원룡(1978)에 따르면 한국적인 미의 일관된 정신은 ‘자연주의’이며 권영필(1992)은 한국미의 특질을 이원화된 구조로 파악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정제·세련미(상층문화)와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온 소박미(기층문화)가 상호 부침·합일하는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다⁵⁾.

최준식(2000)은 조선후기 예술을 관통하는 미의식

<표 1> 한국적 미의 특성에 대한 문헌 고찰

저자	미적 유형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	비에미, 선의 미, 백의 미, 소박미
고유섭 (1905-1944)	무기교의 기교미, 비균제성의 미, 질박미, 구수미
최순우 (1916-1984)	순리미, 은근미, 백색미, 담조미,
김원룡 (1992)	자연친화미, 무아집착의 미, 조화미
권영필 (1992)	정제 · 세련미, 소박 · 토속미, 해학미
유정미 (1999)	단순미, 자연미
최준식 (2000)	자유분방미, 소박미, 익살미, 파격미
실영옥 (2006)	순리미, 백색미, 곡선미, 해학미, 추상미

으로 ‘자유분방성’을 주장했으며 자연주의 혹은 자연스러움의 개념을 언급하며 곡선의 미와 여백의 미도 이런 자연주의 미론에 포함시켰다. 그는 또한 소박미 혹은 소박주의의 개념을 주장하며 익살(해학)미 · 파격(일탈)미 등의 개념도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운 미의식의 하나로 보았다⁶⁾.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 1>로 정리하였다.

이상을 통해 한국적 미(美)의 미적 범주는 꾸밈없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며 자연주의적 감성을 표현한 자연의 미와 풍부한 상상력과 구상력이 만들어낸 추상의 미, 그리고 파격적 일탈을 통한 자유분방함 즉 해학의 미로 이해된다.

3) 한국적 미의 특성

한국적 미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이론가들에 의해 공통의 분모를 가진 자연의 미와 추상의 미, 해학의 미를 우리의 전통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한국적 아름다움의 특성으로 살펴본다.

(1) 자연의 미

자연은 곡선과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곡선의 아름다움은 특히 전통 예술품의 여러 장르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시대 벽화의 사신도는 가늘고 긴 곡선으로 표현되어 곡선미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곡선의 아름다움은 건축이나 조각이나 회화 외에도 많은 곳에서 그 특질을 볼 수 있다. 일반 공예품에서도 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태아를 낳은 신라시대의 곡옥은 승고함까지 들게 한다. 특히 도자기에 흐

르는 곡선은 가히 으뜸 중에 으뜸이다. 요란스럽지도 기교를 부리지도 않은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이다⁷⁾. 어떤 가식이나 꾸밈없는 평안함을 주는 선이다. 이런 곡선의 미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개념 안에 넣을 수 있다. 자연스러운 곡선의 미는 구조적인 곡선과 직선의 곡선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직선도 곡선의 일부라 여겨진다⁸⁾. 직선의 미는 고대시대의 복식에서 나타났으며 곡선의 미는 조선시대의 복식에서 표현되었다. 이에 대해 채금석은 우리문화의 특성을 곡선의 미학, 여백의 미학, 싸는 미학⁹⁾으로 풀이하였으며 이 곡선의 미학은 한국가옥의 초가지붕, 도자기 예술, 그리고 조선시대 저고리의 깃, 도련, 배래선에서 그 예를 들고 있다.

(2) 추상의 미

우리의 전통 속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추상의 아름다움이 많이 녹아 있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상상력과 구성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구성력이 발휘된 자주정신과 창조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멋스러운 추상조형을 이루는 바탕이 된 것이다¹⁰⁾.

선사시대의 암각화나 빗살무늬토기를 보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새겨 넣은 한국인의 추상미의식을 느낄 수 있으며 꾸밈없는 무기교로서 도출된 추상적 문양은 현대의 어떤 추상무늬보다 돋보이는 통일감, 리듬감, 균형미를 갖추고 있다.

미국 디자이너에 의하면 조각보의 디자인 감각은 몬드리안(Piet Mondrian, 화가, 1872-1944)의 기하학적인 추상미술에 버금간다는 것이다¹¹⁾. 이는 당시의 문화를 그저 자신의 손으로 옮긴 것으로 문화의 기본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의 예술

<표 2> 한국적 미의 특성

	특성	형태
자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순수한 사고방식의 표출 ● 은은하고 자연스런 선, 곡선미, 여백미, 단순미, 직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미, 직선미 ● 여백미, 단순미
추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상상력과 구상력의 표현, 자주정신과 창조정신이 바탕 ● 자유분방한 선과 다양한 형태로 현대 감각의 멋을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형의 미 ● 단순미, 세련미
해학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살스러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풍자와 달관의 멋 ● 과장되고 자유로운 선과 색상, 과격적인 형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자미, 익살미 ● 과격미, 비정형의 미

적 행위가 수준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 속에 면면히 녹아 있는 추상의 아름다움은 자유분방한 선과 다양한 형태로 현대 감각의 멋을 지닌 독창적인 한국의 미를 만들어왔다.

(3) 해학의 미

옛날부터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모든 작품과 예술 활동 속에 은근한 미소를 짓게 하는 해학적 요소를 담아내곤 하였다. 해학적 미란 익살스러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이러한 해학미는 한국 사람들의 타고난 성정과도 관계가 있으며 국난이 되풀이 될 때마다 풍부하고 다양한 해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민족의 기질을 드러낸다.

해학은 무한한 포용력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감정으로 관조된 감각의 차이에서 얻어지는 감정의 모습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같은 부류의 개념으로 기지(Wit), 유머(Humor), 골계(The comic) 등으로 정의되고, 반어(Irony), 풍자(Satire)는 해학과 보다 밀접한 개념으로서 우리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테마로 선정되어 왔다.

한국인들은 꼭 짜여진 인위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익살을 부리기 힘든 뜻밖의 상황에서 익살을 부리기도 하면서 과격적인 일탈을 작품 속에 반영시키기도 하였는데 민화나 하회탈, 장승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해학적 아름다움은 과장되고 과격적인 형태미와 대비되는 원색의 사용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적 미의 특성을 다음의 <표 2>로 나눌 수 있다.

2.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관한 고찰

1)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

패션이란 라틴어의 ‘행위’, ‘동작’을 의미하는 ‘파

티오(factio)’에서 유래한다. 원래의 의미는 유행스타일을 말하며, 방법, 하는 방법, 양식, 모양, 형 등의 의미가 내포¹²⁾되어 있다. 패션은 디자인에 관한 것이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관계하며 디자인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활동을 뜻하며 창조하기 위한 표현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느낌과 생각을 패션 디자인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하나의 미적 구조의 새로운 질서를 표출시키는 창조적인 사고의 결과물¹³⁾이며 패션 상품개발에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¹⁴⁾.

한국적 디자인은 디자인된 대상을 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한국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디자인이다. 한국적이라 하면 우선 전통적인 주제나 소재를 모티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올바른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의 한 형식적 요소를 재현할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랜 세월 동안의 우리의 문화와 종교, 사상, 정서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 한국의 미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감정, 정서, 시대상에 맞는 미의식을 바탕으로 시대와 세계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함께 고유성을 지닌 독자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위해서는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한국 복식의 미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손경자(1968)는 궁중복식을 연구하며 고전미와 고유미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였으며 백영자(1987)는 상대복식의 시원과 고유미, 능률적이면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근대복식에서 나타나는 표현미와 율동미에 관한 특징이 현대복식의 창조미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금기숙(1990)은 한복의 복식미 형태와 구조 색채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한복은 자연스러운 여유, 부드러운 느낌, 비결정성의 가변성을 지닌 풍성한 실루엣을 특징으로 꼽았다. 김영자(1991)는 한국의 복식미는 외적으로는 진솔, 중후한

<표 3> 한국의 복식미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

연구자(연구년도)	미적 특성
손경자(1968)	고유미, 고전미
백영자(1987)	장식미, 표현미, 울동미, 창조미
김영자(1991)	격식미, 단정미, 정적미
금기숙(1990, 1992)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
최세환 · 김민자(1993)	자연중심의 순수미, 상징미, 절제된 비애미
채금석(1999)	싸는 문화, 절제된 격식미, 단순, 소박한 자연미
권영숙 · 도주연(2000)	선의미를 자연미, 절제미, 여유미로 표현
임영자 · 유순례(2000)	선의 미, 비대칭과 파형의 미, 평면적 구성미, 상징미

격식미를 보이고 내적으로는 정신미와 조화되어 한국복식의 미적 특질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채금석(1999)은 한복의 특징을 문화개념의 싸는 문화¹⁵⁾로 보고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동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의식주 모두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옷의 특징은 옷 자체는 평면재단에 의한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착용했을 때 곡선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의 복식미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이 특징의 하나라고 하며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전체적으로 단정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품위가 있다고 정리하였다¹⁶⁾. 권영숙 · 도주연(2000)은 우리옷의 특징을 선의 미로 규정하였으며 조용하면서도 가슴 깊숙이 마음을 감싸 안는 문화적 특징이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표 3>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적 이미지의 미의식과 미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 왔으며 새로운 미적 요인을 찾아내며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적패션 디자인의 개발에 다각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진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해 금기숙(1999)은 한국적인 이미지를 패션 디자인의 주제로 활용한 패션 디자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했으며 채금석(2004)은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한국고유의 정서나 미감을 시각적 요소, 혹은 이미지, 느낌으로 패션디자인에 활용한 것이라 정의하면서 더 나아가 세계시장을 위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해 한국패션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만들어 전세계시장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패

션디자인으로¹⁷⁾ 정의하였다.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관해 초기에는 전통한복을 생활화한 생활한복으로의 이미지가 컸으나 점차적으로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과 함께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대감각에 맞게 보편성을 추구하며 재창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한국적 디자인에 있어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보다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문화적 유산, 즉 우리의 체질을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우리다운 복식의 정립이 필요하다¹⁸⁾ 하겠다.

2)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범주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전통한복을 바탕으로 한 한복의 생활화와 현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서양복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이미지의 차용이었다. 전자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개량한복이나 생활한복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후자는 한국적인 미를 보편적이면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인적 측면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20세기에 많은 전통이 잊혀지거나 소멸되었으나 또 다른 전통이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패션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점이 전통한복의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형태를 주로 차용하고 있는 생활한복의 개념이 아닌 한국의 전통을 선이나 색 등의 가시적인 형태로 끄집어내어 서구복

식과 절충된 형태로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즉 한국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서양적인 것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적 디자인은 옛 것의 재현이라기보다, 옛 양식이 현재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됨으로써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하는 것¹⁹⁾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도 한국적 조형의식과 문화의식의 바탕위에서 동양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을 소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²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친 전통성의 강조보다는 전통성을 유지하되 기능적인 유럽패션의 미감과 적절히 공유될 수 있는 상품적인 디자인²¹⁾으로 동양과 서양을 결합할 수 있는 세계시장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패션디자인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뿐 만이 아닌 고대시대까지로 시야를 넓힌 한국 전통복과 한국미를 통하여 형태적인 면에서는 유, 고, 상, 포, 대 등의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를 직접·간접 표현하거나 우리 전통색인 소색을 포함한 무채색과 오방색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소재 간의 겹침이나 다른 효과를 통해 이중색의 느낌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은근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적 소재를 사용하거나 전통소재와 결합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소재들의 복합적인 사용으로 인해 한국적 전통미를 드러내며 자연문이나 기하학문을 응용하여 표현된 다양한 문양과 장신구나 장식적 포인트를 한국적 이미지로 표출하는 디자인이다. 이렇듯 한국전통패션과 한국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혼합하고 절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범주로 삼고자 한다.

III.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

우리 전통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축적된 체험의 소산인 한국적 이미지를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 등의 디자인요소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형태

여상미(1997)에 의하면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는 형태라고 하였는데 한국복식의 실루엣이나 건축, 도자기 등에 나타난 완만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김지연(1998)에 의하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선을 지향하며, 직선이라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편안한 직선과 세선이 추구되고 있으며, 전체 실루엣과 저고리의 도련, 배래, 썬 등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응용은 순수한 심미적 의지에 의한 자연스러움의 표현이라 하였다. 김인경(1998)은 한국적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 그동안의 전통적 요소의 재현적 측면이 아닌 우리의 고유복식양식을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한복의 서구화가 아닌 재창조,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김혜경·홍정화·조현정(2001)은 한국복식의 윤곽선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이며 한복의 윤곽선을 인체의 움직임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고정된 선과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동적인 선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한국 복식의 형태를



<그림 1> 이영희 05 S/S
www.leeyounghee.co.kr
한복저고리 응용



<그림 2> 설윤형 97 S/S
SFAA 한복 치마 응용



<그림 3> 조은경 05 S/S
SFAA 한복 바지 응용



<그림 4> 이상봉 06 FW
www.liesangbong.co.kr
한복 옷고름 응용

응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다.

2) 색상

색상이란 인간의 눈을 통해 지각되어지는 시각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빛의 스펙트럼(분광)의 조성차(組成差)에 의해서 성질의 차가 인정되는 시각각(視感覺)의 특성이다²²⁾.

한국의 복식에 있어 색상은 음양오행설²³⁾에 바탕을 둔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미적 역할을²⁴⁾ 해 왔다. 오행에 의한 황색, 백색, 흑색, 적색, 청색은 기본 색으로 우주 생성의 오원색에 해당하며 오정색, 또는 오채라고 부른다²⁵⁾.

한국 저고리 색상의 시대별로 나타난 특징은 삼국 시대에는 황색, 홍색, 청색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소색, 황색, 녹색, 자색 계열의 색, 조선시대에는 백색, 황색, 청색, 자색, 연두색 계열의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²⁶⁾. 이렇듯 한국 전통 복식의 색상은 예로부터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백색과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으로 구성되어진다고 나누어 볼 수 있다. 백색은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색으로 신성한 상징성을 갖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은 즐거움을 나타내며 상징성이나 길상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원색의 사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이 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의 조형요소 중 색상은 감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에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근래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색상에 관한 많은 관심²⁷⁾을 일으키고 있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한국적 색상을 응용한 디자인이다.

3) 소재

한복의 아름다움은 그 재료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²⁸⁾. 소재가 지니고 있는 미적 특성이란 그 소재 자체가 가진 조직적인 특징과 더불어 소재의 분위기가 한국복식의 형태와 조화되어 나타나는 미적 특징²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통재료로 애용되었던 삼베, 모시, 무명, 명주의 미적인 특성에 대해 금기숙(1982)은 삼베는 소박하고 소탈한 우리의 정서를 느끼게 하며 모시는 섬세하고 가벼우며 투명한 느낌을 주며 한국인의 은근한 멋을 살려준다고 하였다. 무명은 소박한 서민의 정서를 표현하며, 명주에 대해서는 섬세하고 정교한 고급 직물로 무늬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백색의 안감을 받쳐 더욱 은근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했다고 한다. 채금석(2006)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는 다양한 종류의 면, 마, 견 소재를 사용해 왔으며 새의 털을 사용한 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공존하였다³⁰⁾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소재의 개발이 세계 속에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하였고 최고급소재와 대중적인 소재 개발을 동시에 시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규화·이희승(2004)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적 패션은 소재의 평면적 효과를 추구하였으며 이는 의복 소재의 결, 누빔, 깨끼바느질, 조각천 잇기, 자수와 금박, 프린트에 의한 문양으로 표면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했다. 이런 미적 특징은 곡선을 이용하여 신체의 굴곡에 맞게 표현하는 서구 스타일과는 다르게 우리 옷의 평면적 특성에 소재의 표면효과를 붙여넣음으로써 실용성과 함께 볼륨감,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생기를 붙여넣었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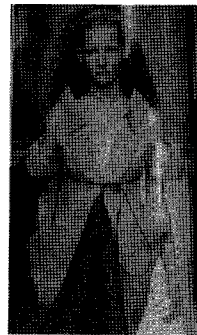
<그림 5> 김동순 97 S/S SFAA 소색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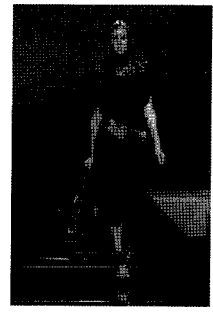
<그림 6> 이상봉 04 S/S SFAA 오방색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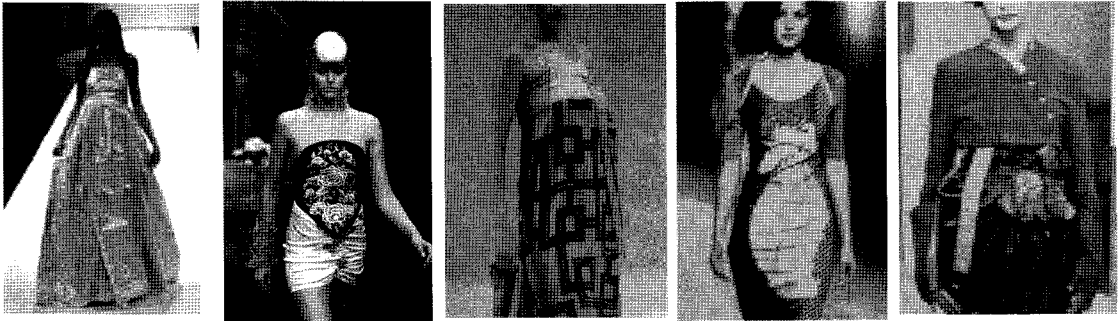
<그림 7> 설윤형 97 F/W SFAA 기타색 응용



<그림 8> 진태옥 97 S/S SFAA 한국적 소재 응용



<그림 9> 설윤형 06 S/S SFAA 서양소재에 한국적 공예기법 응용



<그림 10> 이영희 04 S/S <그림 11> 이상봉 04 S/S <그림 12> 이상봉 97 F/W <그림 13> 진태옥 06 S/S <그림 14> 설윤형 95 S/S
 www.leeyounghee.co.kr www.liesangbong.co.kr SFAA 기하학문양 응용 SFAA 기타문양 응용 SFAA 장식적요소 응용
 창작소재 응용 자연문양 응용

소재를 응용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표현하였다.

4) 문양과 장식

문양은 미적인 추구하고 더불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은 시대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³¹⁾. 패션과 문양의 조화나, 문양이 어떤 형식으로 복식에 나타내어지는가 등의 문양 표현 기법에 의해 복식의 미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문양이 표현된 장식 공간과 복식과의 관계는 복식미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채금석(2006)은 고려시대의 직물 문양이 화려하고

귀족적인 반면 조선시대의 직물에 보이는 문양은 보다 단조롭다고 하였으며 무늬가 있는 직물은 무늬에 여러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바탕과 동일한 색으로 처리하였다³²⁾고 하였다. 김혜경·홍정화·조현정(2001)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온 한국적 조형감각은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식물문양이나 기하학문의 사용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김영자(1992)는 이러한 문양과 장식은 의복자체의 재료와 색, 형태 등의 조건 위에서 다시 새로운 형태나 색으로 주체인 복식에 보조적인 미적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한국적 문양과 장식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작품이다.

<표 4>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

		특징
외형적 요소	형태	형태의 변형, 다양화
	색채	무채색, 소색 등 사용, 원색의 이미지는 소량 사용
	소재	전통소재에서 서로 다른 소재 사용, 반대적 소재와 결합, 신소재 개발
	문양과 장식	다양화 프린트, 자수, 그림그리기 등 자유롭게 사용
내형적 요소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문화의 함축적 의미 표현

<표 5>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작가별 특징

작가	디자인 특징
이영희	- 한복의 선과 형태적, 색채적 측면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 - 천연소재를 주로 이용하며 천연염색의 효과를 즐김, 조형미와 분위기를 주로 사용
이상봉	- 한국복식의 형식 보다는 색채와 디테일 중심의 응용 - 자수, 문양을 위주로 한국적 감성 강조
설윤형	- 저고리, 치마, 마고자, 버선 등의 곡선미 응용 - 이음선이나 치마끝선을 깨끼바느질로 마무리, 색상과 문양, 장신구로 한국미 표현
이신우	- 저고리의 여밈과 옷고름, 두루마기, 버선 응용 - 직선 깎과 흉배를 응용한 벨트
진태옥	- 한국복식의 형식은 가능한 배제하는 대신 곡선미와 소재로 한국적 감성 강조

이상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을 <표 4>로 정리하였다.

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황

우리나라 복식의 경우 한국적인 것에 관해 전통의 의미가 현대적인 의미보다 강조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대에 있어 ‘한국적’이란 개념은 옛것의 형식적인 재현이나 모방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 전통과 현대화 요구의 충돌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³³⁾으로 여겨진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한국의 내면적 정신요소를 외형적인 디자인요소로 나타내었으며 한국 디자이너들 중 한국적 전통미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디자이너로는 이영희, 이상봉, 설윤형, 이신우, 진태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5>와 같다.

각문화권의 전통은 민족복, 민속복 또는 특수한 의복으로 남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 아래서 전통성은 일상성과는 분리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패션의 성격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까지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념이 무너진 것은 전통복식의 여러 요소들이 패션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어 새로운 뉘앙스를 가지고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경우 전통 한복의 특징을 주로 사용한 전통미를 강조한 디자인과 한국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성을 가미한 한국미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는 외적 요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 디자이너에게 있어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단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내면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형적 특징을 활용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는 첫째, 한국적 미의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을 살피고 셋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연구되어졌다.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온 ‘한류(Korean Wave)’의 영향으로 한국적 이미지에 긍정적이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부여되었으며 이영희를 비롯하여 뉴욕과 파리에 새롭게 진출한 한국 디자이너들과 일본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 새로운 장을 제시한 의예사 같은 연구단체에 의해 패션에 있어서도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한국적 문화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독자적이며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패션디자인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목적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미의 특성은 자연미, 추상미, 해학미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적 미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양식이 깊이 우러나는 것으로 한국인다운 체취가 짙게 표현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둘째,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비정형의 멋과 해학을 즐겨왔던 한국 고유의 정서나 미감을 디자인, 색상, 소재를 통한 시각적 요소, 혹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로 패션디자인에 활용한 것으로 한국패션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시장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패션 디자인을 말한다.

셋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사례에서 보여진 바에

<표 6>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중점 디자인별 특성

		전통미 강조 디자인의 특징	한국미 강조 디자인의 특징
외형적 요소	형태	전통 실루엣 중시, 한복의 단순화와 실용화	형태의 변형, 다양화, 서양 복식의 실루엣 가미하여 재해석
	색채	오방색, 원색, 소색, 백색	무채색, 소색 등 사용, 원색의 이미지는 소량 사용, 간색의 사용 증가
	소재	면,마,견 등의 전통적 천연소재, 한 가지 소재 사용	반대적 소재와 결합, 신소재 개발, 소재의 다양화
	문양과 장식	자연문, 기하학문	다양화 프린트, 지수, 그림그리기 등 자유롭게 사용, 문양의 다변형성
내형적 요소		전통성을 표현하는데 중심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문화의 함축적 의미 표현

의하면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서양적인 것을 소화하며 절충된 형태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세계 속에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미감을 찾아 디자인되어졌다.

본 연구의 제한적 요소로는 지속적으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발표하는 국내외 디자이너가 미미한 점에서 오는 실증자료의 한계와 주로 조선시대에 국한된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각 연구소나 업체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의 전통패션의 현대화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한국적 전통미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채금석, 고정민(1999).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5), p.655. 생활한복을 전통한복에 근거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개발해 낸 형태의 의복이라 정의함.
- 2) Sandra Niessen, Ann Marie Leshkovich, Carla Jones (2003). The Globalization of Asian Dress. Re-Orienting Fashion. NewYork:BERG pp.123-129.
- 3) 강희경(1998).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1990년 이후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38, p.214.
- 4) 심영옥(2006). 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의미. 서울:진실한 사람들, p.8.
- 5) 최준식(2002).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난장과 파격의 미학을 찾아서. 서울: 조합공통체 소나무, p.215.
- 6) 최준식(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서울: 효형출판, pp.90-93.
- 7) 심영옥(2006). '앞의 책'. pp.41-43.
- 8) 최준식(2000). '앞의 책'. p.92.
- 9) 채금석(2005) 한국전통의 멋과 미, 한복의 현대화. K-TV, 특별한 강의, 6, 27.
- 10) 심영옥(2006). '앞의 책'. pp.46-47.
- 11) 최준식(2002). '앞의 책'. p.23.
- 12)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12.
- 13) 채금석, 공미선(2005).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에 관한 연구. 복식, 55(2), p.45.
- 14)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105.
- 15) 채금석, 고정민(1999).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5), p.36.
- 16) 채금석(2000). 한국 전통복식의 정신 문화연구 -포(袍)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1), p.11.
- 17) 채금석(2004). 세계시장을 위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 복식, 54(2), p.2.
- 18) 김인경(1998).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38, p.235.
- 19) 채금석(2004). '앞의 글'. p.123.
- 20) 김영기(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p.64.
- 21) 채금석, 공미선(2005). '앞의 글'. p.2.
- 22)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dic&query=%BB%F6%BB%F3&sm=tab_hy, 2006. 10. 03.
- 23)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 두 원리의 소장(消長)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 두산동아대백과. 2006. 10. 11.
- 24)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dic&query=%C0%BD%BE%E7%BF%C0%C7%E0&sm=tab_hy. 2006. 10. 3.
- 25) 이은영, 유순례, 백천의(1999).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p.125.
- 26) 하용득(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 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pp.31-33.
- 27) 채금석(2006). 우리 저고리 2000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190.
- 28)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 -여자 한복의 상·하색 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p.1053.
- 29) 이은영, 유순례, 백천의(1999). '앞의 책'. p.109.
- 30)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pp.35-36.
- 31) 채금석(2006). '앞의 책'. p.190.
- 32) 김선경(2004). 현대 한복소재 문양의 조형적 특징. 한복문화, 7(2), p.72.
- 33) 채금석(2006). '앞의 책'. pp.185-186.